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5호 [루계 제25083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당의 령도따라 주체적출판보도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선로동당은 사상을 혁명의 계일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을 전진하며 승리하는 불멸의 혁명적당이다.

혁명적인 사상공체와 천민군민의 비상한

정신력에 의하여 당창건 70돐이 승리자

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되고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

의 포성이 높아 올려고 있는 시기

우리는 『로동신문』 창간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로동신문』이 걸어온 행로는 우리 당의

역사, 주체적인 출판보도물건설 역사와

하나로 엇달아 있다. 우리의 혁명적언론은

당이 창건된 첫시기부터 당파 뜻을 같이

하고 윤리에 바탕이 온전히 통행하였다.

주체적출판보도물의 오백 역사와 전통

을 파악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지금 당의 사상중시, 언론

종시의 역사를 깊이 깊이 고있으며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에 영구보발할 업적

을 쌓아올리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사상자론의 영재, 주체언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 아래서 승리와

영광의 자랑스러운 혁사를 수놓아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오늘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주체적출판보도물은 대중을 교양하고 조

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는 사상입니다.』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을 출판보도물의 전투적역할에 의하여

담보된다. 혁명적당은 언론을 끌어쥐고 그

신도자적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을 사상적

으로 각성시키고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에 이어 주체언론은 위대한 혁명적당으로서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성을 확립하여 할 지역개방의 힘을 더 높여야 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창간 70돐을 맞이한

우리 당 출판보도부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우리 조국을 세상에 존엄높은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탁월으로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원칙으로 일떠세우려는 것은

백승의 우리 당에는 항일유격대나 팔수가 있다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70년 역사를 더듬어

당장전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울해에 로동신문사와 조선중앙방송총위원회, 조선로동당출판사를 비롯한 주요 출판보도기관들도 자기의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당의 영광찬란한 70성과 더불어 창간, 창설, 창립의 70년력을 공지들이 총화하는 그자체가 우리의 주제언론, 사회주의조선의 청중이다.

우리 당마크에 빛나는 봇때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함으로 진행하신 사업이 당창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당창건위업실현에서 각별히 힘을 넣으신 사업의 하나가 바로 당보창간이며 력사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다.

위대한 행정도장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는데 있어 당보를 창간하시였습니다.》

주제 34(1945년) 9월 25일, 평안남도당의 일꾼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당창건되면 꼭 당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당보를 창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었던 그 시기 당보창간에 대하여 생각해본 사람들은 파악 얼마나 있었을것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있어서 당보창간은 이 나라 인민을 새 조선의 주인으로, 자기의 운명과 혁명의 주인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고 절기시킬수 있는 당의 나팔수의 출현을 위한 또 하나의 혁명위업이었던것이다.

모두가 경탄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다 알수 없었다. 당창건준비 사업을 위하여 항일전장의 신들에도 풀지 못한 투사들을 전국각지에 전환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기자, 편집원들과 인쇄기술자들을 찾이는데 대한 특별파업을 주신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일군들을 만나시고 당보창간을 위한 물질기술적 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당분간 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장이 책임있고 창간사업을 진행함에 대한 문제, 신문에 별들은 집행위원회와 각부에 책임을 맡았던 당보창간에 이르기까지 주간으로 내보내거나 점차 일간으로 발간함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창간될 당보의 제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졌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보의 이름은 《정로》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별한 정치정세에서 인민대중에게 당의 선언을 잘 알려주고 그들을 옮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당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면서 당보의 제호를 대로 포성들...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조국땅에 예사롭게 밟아온 이들이었지만 그늘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북조선공사와 조선조직위원회가 서로 잡고 있는 해방선기슭의 청사는 이론적 부터 설레이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면 우리 당의 창건이 선포된 때로부터 2년만이었다.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조국땅에 예사롭게 밟아온 이들이었지만 그늘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북조선공사와 조선조직위원회가 서로 잡고 있는 해방선기슭의 청사는 이론적 부터 설레이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서 려명의 종소리인 양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나왔다.

오늘 드디어 당보 《정로》의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준비하여온 당보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혁명적 출판보도물들이 세상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빛나는 승리이며 크나큰 영광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혁사적행로에서 언제나 우리의 혁명적 출판보도물들을 항일유격대의 나날수로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굴의 업적에 대한 다합없는 경의이며 청중이다.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매달 하나 달아보지 못하고 둘어간 혁명적 출판계의 제 1세들을 잊지 말아줄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그토록 절절하게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의 글줄을 우리 어찌 눈물없이 읽을수 있으랴.

전국의 첫 출판에서 우리 당의 기관지는 이렇게 태어났다. 당마크에 미치와 낫파 함께 새겨져있는 봇데에는 이런 천만사연들이 무겁게 실려있다.

손수 당마크의 도안까지 그려가시며 완성시켜주실 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려보시였으리라. 《은...》 시 절부터 충대와 함께 혁명의 봇데 얹어세게 추켜들고 한자한자의 글밭을 피고 죽고 목숨으로 지키던 첫 세대 당보의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아는가. 당중앙청사에 당보의 첫 편집실이

꾸려졌던 사실을,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를 취재용승용차로 보내주신 이야기며 머나먼 혁지지도의 길에서도 당보에 실릴 한진의 론설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비행기를 빠우도록 하신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수령님의 뜻을 받아들여 배두산녀장군 정성숙어머님께서 당보편집간사업을 위해 바치신 잊을수 없는 그 날과 밤의 사연들을...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하루일과를 《로동신문》을 보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시며 자신의 방에도 《로동신문》을 보시는 수령님의 사진이 모셔져있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보, 우리의 혁명적 출판보도물들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의 봇은 당기에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새겨진 봇대를 더욱 빛내이며 위대한 혁사를 길이 전하고있다.

그날의 감격적인 광경이 오늘도 당보의 혁사의 갈피에 영원한 기념비적화로써 새겨져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혁연적으로 어버이 장군님과 끊을수 없는 혈맥을 이은 당보를 비롯한 이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은 준엄하였다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당중앙의 제 1회 나팔수가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밀을, 사회주의붉은기가 치는 동무들은 영웅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면서 기자들의 위세를 높이는 우리 당의 사상전진을 사생결단으로 지켜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9(2001년) 2월 전국기자, 언론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는 우리 당 출판보도력사에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중의 하나였다.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항상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 당중앙을 응위하자!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멋껏하게, 훌륭하게 온 만방에 소리높이 울려펴지게 하자!

오늘도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뜻을 순간도 잊지 않고있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로동신문사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이에 대

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 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를

인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이 대 한

밀음과 기대가 이렇듯 크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금수산기념공원(당시)을 찾으신 그날로 로동신문사 청년

의 모든 기자, 언론인들의 신념과 의지의 출발이기도 하다.

신념은 때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받으며

문화활동을 벌여온 나날은 길지 않다.

그나날은 우리 문집전사들에게

있어서 남수는 수수, 수백년을 두고

당보의 주요기사들을 지도하여 주신 것만으로 그 수술을 해이될수 없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진군

나팔소리를 높이 울려오는 나날 우

리 언론의 대부대는 장군님과 사상

파통이 하나가 되었으며 가를해야

가를수 없는 영원한 동행자, 믿음직

한 대변자가 되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뜨겁게 세기 때마다 당보의 문필들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는 첫 기획에서 만나서야 할 사람을

찾아온 그들이 주제 100년대에 높이

믿음직이었다.

세로운 주제 100년대가 되었을 때

《당보는 우리 당의 목소리이고 사상적대변자입니다.》 김정일

당의 사상관철전에서 봇대포의 위력 떨치리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지난 70년 세월 어느 한시도, 어느 하루도 끊김 적 없고 은적 없는 우리 당의 목소리!

당보 《로동신문》은 다심한 스승의 가르침과 편지, 친구의 친근한 음성과도 같이 천만의 심장마다 삶과 투쟁의 고리와 진리를 싣기 주고 신념과 의지의 양기를 세워주며 시대를 즐기자며 선도하고 떠밀어온 당의 목소리이다.

분계선도시에서 서 멀리 북면의 신글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어머니당의 그 목소리에서 인민은 자기가 나아갈 길을 본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모습과 선군으로 승리해 가는 내 조국의 위대한 현실을 본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신문》의 기본사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고무주동하는 것입니다.

당보 70돐을 맞는 뜻깊은 이 시각 하나의 숭엄한 화폭이 우리의 가슴을 드겁게 적서 준다.

조국과 혁명을 전두에서 이끄

시는 그 바쁜 속에서도 언제나 하루의 첫 일파로 《로동신문》을 펼쳐보시던 어버이수령님!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에서 혁명적 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미연해 주시고 해방 후 당창건위업과 함께 당보장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정 당보의 창간자 이실뿐 아니라 당보의 첫 독자이시였다.

이에 대하여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국가가 아무리 바빠서도

매일 아침 당보를 꽉 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보아주셔야 할 중요한 문건도 많

으시지만 《로동신문》을 보시

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첫 일파를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로동신문》에 항상 의의를 부

여한다고 뜻깊게 교시하였다.

조국과 혁명에 충신했던 시련

이 닥쳐왔던 지난 199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 천만의

시랑과 맞먹는 위력한 교양자,

대단한 선전자, 충실했던 대변자

가 되어 당도자와 뜻도 숨길도

같이하고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

의 두리에 굳게 끌어세우며 혁

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고무주동해 온 것은 《로동신

문》의 커다란 자랑이 아닐수

없다.

시대의 참된 전현인 조선식

자종합병원 관장 린천동무와

돌이켜 보면 당보에 실리는

우리 당의 혁명 정책, 나라의

곳곳마다에서 품질없이 창조되

는 기적과 위훈의 새 소식, 미역

의 화원에서 날마다 풀려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대로 천

만군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향도

하는 위대한 우리 당의 부름이

있고 세기를 주름잡아 내달리는

존엄높은 내 조국의 모습이었

며 일편단심 당파 수령만을 굽

고 있다.

하나의 작은 불씨가 보원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번졌다.

미풍의 주인공, 시대의 전형적

인간을 뜯어개 사람하고

동지와 집단을 위해 피와 살,

생명까지 버티며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주체혁명영위,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주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30일 당보 1면에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인들, 인민들을 끌

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썩이

고 있다.

당보 10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나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 것은 21년 전 위대한 김정일同志에 하신 선언이었다. 역사의 그날 우리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발표되었다.

로작은 발표자마다 폭포같은 밤 향을 불러일으켰다.

석달 남짓한 기간에만 해도 『위력한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인』, 『광명은 동방에서부터 비쳐오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삶과 정속에 살아있다』 등의 제목으로 세계 210여개의 출판도구들에 걸친 유판으로 되었다. 로씨야 빨레야출판사, 꾸비에 씨뜨뜨출판사, 메히프로동당출판사, 수리이의 다른 미스고출판사, 이탈리아문화와 사회주의운동, 주사상연구원 펠린드전국위원회,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축전현회, 방글라데슈 조선인민 및 현대성위원회를 비롯한 수백개 단위에서 절세위인의 고전적작품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신문, 잡지, 인터넷포털에 게재하였다. 로작의 심오한 사상에 깊이 공감된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칭송하여 성명, 담화들을 발 표하였다.

온 누리를 진감한 환희와 격정은 역사의 모전 광풍에서도 인류의 지향이고, 남원인 사회주의의 뜻과 수호하시고 승리에 전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同志에게 드린 칭송이다. 시대에 찬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

시었습니다.』

주체 76(1987)년 11월 어느 날 군과 당화를 나누시던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 당시 심지 않은 국제정세에 대하여 말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요즘 쏘련이 점점 병고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는 수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기발이 내리워지고 자본주의 바람이 불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역사는 그이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흘렀다.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사회주의의 배신자, 변절자들의 추악한 행위로 미미암아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하루아침에 막았 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사

가 빛나졌다.

그 여파는 삽시에 온 세계를 휩쓸었다. 사회주의의 불피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사회주의의

배신자, 변절자들의 추악한 행위로 미미암아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하루아침에 막았 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사

가 빛나졌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때 하여』…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에서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통봉의 원인과 사상적교훈,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과학성, 그 승리의 힘연성을 멀칠 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작품들에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고전적작품들로 되었다. 21세기는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전진하며 승리하는 세기로 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세계 혁명적당들은 우리 장군님을 자기 당의 명에 위험장으로 놓이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펼독 문류로, 당건설과 활동의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자 했다. 김정일同志은 김정일同志께서 벌리신 정력적인

사상리통활동은 사회주의가 역사상에 대한 존경과 확신을 자아낸 대에 『우연히 출현한 비파학적영수』이며 사회주의의 사회가『건강과 없는 사회』인 것처럼 험준히 훈련을 받았으며 철방하면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파멸을 선고하고 세계 혁명적인 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안겨주며 세계사회주의 운동을 힘 있게 고무

동하는 위력을 한사랑론적무기, 승리의 기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작을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 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펴들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떠들어대는 반사회주의 선전의 광풍이 우주공간을 어지럽히었다.

사회주의 위업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 엄숙한 시기에 세계사회의 빛을 주고 희력을 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同志이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폐방은 허용될수

있을수록 사회주의 운동을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가

다듬었다.

국제적 규모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 대한 연구로론, 강습, 학습회 등이 활발히 벌어졌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좌익

정당들로의 작전구로론회에서

로작이 발표된 1994년 1월 1일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전군의 날로 정

하고 전보적정당들이 해마다 이날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

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위대한 김 일성 동지와

김정일同志의 태양상,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우간다신문『한 라이즈』 10월 8일 부는 『조선로동당의 불폐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조선로동당이 불폐의 당으로 위임되었고 있는 요인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

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데 있다

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김 일성 주석께서 외

김정일同志께서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폐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정은同志

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면서

불폐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

고고하고 있다.

김정은은 각각에서 김 일성-

김정일同志의 조선로동당의 지

도사상으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 일성-김정일同志의

조선로동당의 최고령으로 선

포신한 것은 선대 수령들의 사상

과 위업을 높이 계승해나가시

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

한국은 원수에게 우연하게

죽어버렸다.

한국은 원수에게 우연하게

죽어버렸다.